

국문초록

특집 |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비본질적·포괄적 연구를 위하여 | 신기영

투고일자: 2012. 11. 22 | 심사완료일자: 2012. 12. 12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은 마이너리티의 비본질적 개념과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마이너리티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국제규범과 일본적 특수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문에서는 정치학과 페미니즘 이론 분야의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마이너리티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의 사회집단과 구조적 억압문제, 우에노의 복합차별론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 이론들과 관심을 공유하면서도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각으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마이너리티 연구에 교차성 개념이 시사하는 중요한 함의는 첫째, 마이너리티 집단정체성을 본질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체성 카테고리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면서 집단 내부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는 점, 둘째, 마이너리티 집단의 피지배자성, 즉 다수사회의 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 셋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사회변혁의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정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마이너리티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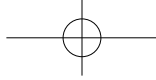
주제어: 마이너리티, 정체성, 교차성, 사회집단, 복합차별론

조선족의 일본 이주에 관한 시론: 외국인 수용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 | 권향숙

투고일자: 2012.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2. 11. 28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은 조선족의 일본행을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 담긴 다양한 함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일본에 있는 조선족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조선족을 '보이지 않는 소수자'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1980년대 전반부터 진행된 일본으로의 이주를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과 관련시켜 고찰하며 셋째, 그 배경에 담긴 함의를 쫓는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의 도일과정은 일본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다시 말해 '유학생 10만 명 계획'의 실시, '개정 입국관리법'의 시행, 신원보증인제도의 폐지 등 일련의 정책과 그에 따른 취학생 및 비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전문직, 기술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이민 연구 이론들이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있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주제어: 일본의 조선족, 보이지 않는 소수자,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이동



일본 TV 영상물의 재일제주인 표상 | 양인실

투고일자: 2012. 11. 16 | 심사완료일자: 2012. 12. 1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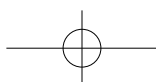
최근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재일제주인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와 오사카의 지역방송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을 중심으로 한 특집 다큐멘터리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이들 최근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는 재일제주인을 재현하면서 주로 밀항, 불법체류, 오사카 시 이쿠노쿠, 난민 신청, 재일외국인들 간의 사랑이라는 요소를 다룬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밀항이 급증하던 1965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에도 오사카 시 이쿠노쿠를 중심으로 밀항과 불법체류, 난민 신청이 중심이 되어 재일제주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에서 재일제주인이 다루어질 때 반드시 나오는 제주4·3사건, 밀항, 다른 재일조선인들과는 다른 방식의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을 들어, 각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일제주인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1960년대 영상물은 재일제주인들이 4·3사건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으로 왔고, 그 과정에서 '밀항'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으며, 불법체류자로 일본에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가족애와 미담의 대상으로 재일제주인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재일제주인 1세 여성들을 다룬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는 재일제주인 여성으로서의 삶과 굴곡이 잘 표현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역사와 맥락이 삭제되기도 했다. 또한 재일제주인 3세대 4세가 주인공이 되면 이들의 관심은 정치나 역사보다는 한국의 문화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재일제주인 1세와 2세들의 밀항의 기억은 이들을 연결하는 키워드가 된다. 그리고 재일조선인들을 등장시키는 일본의 많은 영상 텍스트들이 재일조선인 1세와 3세를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뇌로 연결하고, 2세를 타자화해 왔다면, 최근의 영상 텍스트는 2세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기존의 텍스트와는 다르게 재일조선인을 다룬 영상물, 특히 재일제주인을 다룬 영상물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온 일본의 다문화주의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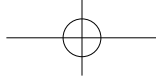
주제어: 재일제주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밀항, 난민, 아이덴티티, 다문화주의, 제주4·3사건

'중국잔류 일본인'을 둘러싼 포섭과 저항: '본국 귀국자'라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 | 현무암

투고일자: 2012. 11. 26 | 심사완료일자: 2012. 12. 10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1972년의 중일국교 정상화 이후, 특히 1980년에 들어서 전후에 중국으로부터 귀환하지 못했던 많은 '잔류 일본인'이 귀국하게 되었다. 이들이 일본 패전 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인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이른바 '잔류부인' 및 '잔류고아'다. 하지만 간신히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도 '중국잔류 일본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냉대와 사회적인 차별 속에서 이들은 사회적 마이너리티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지원과 존재의 정당성을 위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싸워나가야 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어느 전쟁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처럼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쟁피해 수인론(受忍論)'을 가지고 부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 구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수인론'과 전쟁 책임론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중국잔류 일본인'을 통해 기민과 이산이라는 역사성이 투





영되는 이들에 대한 일본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일본 사회 속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 및 전후 역사인식 속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주제어: '중국산류 일본인', 중국 귀국자 지원·교류센터, 수인론(受忍論), 전쟁책임론

『1Q84』의 세계에 떠오른 두 개의 달: '옴문제'·시스템·마이너리티 | 박규태

투고일자: 2012. 11. 15 | 심사완료일자: 2012. 12. 6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의 목적은 '시스템'과 '마이너리티'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 속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신화적 이항대립, 가령 선과 악의 쌍을 비롯하여, 아오마메와 덴고, 옴교단과 일본 사회, 가해자와 피해자, 원인과 결과, 지상과 지하, 마더와 도터, 픽션과 리얼리티, 상처와 치유, 평범과 비범 등(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두 개의 달'이다)이 가지는 의미를 '옴문제'와 연동시키면서 추적하는 데에 있다. 이때 '옴문제'란 1995년에 발생한 옴진리교 사건을 전후한 프레(pre)옴 및 포스트(post)옴적인 정신상황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체적으로 ① 악에 대한 일본인의 무감각, ② 자발적 혹은 자각적인 마인드 컨트롤의 위험성, ③ 마이너리티의 피난처 부재로 요약될 만한 일본문화와 사회시스템의 맹점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 안의 옴진리교'로 일컬어질 만한 옴진리교와 일본 사회의 구조적 상동성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1Q84』 속의 '시스템'과 '마이너리티'는 누구인가? 파트타임 청부킬러이자 스포츠 인스트럭터인 아오마메와 소설가이자 수학학원 강사인 덴고는 자신들이 1984년의 세계로부터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1Q84년의 세계로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된다. 초등학교 동급생이었던 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10살 때 학교 교실에서 서로의 작은 손을 잡았던 장면을 하나의 '구원'으로 기억한다. 한편 켈트교단 교주의 딸인 17세의 후카에리는 덴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의 기억을 소설화한 「공기번데기」를 출간한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리틀피플을 세상에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 이 글은 전술한 '옴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세 주인공이 '마이너리티'의 대변인이며, 리틀피플은 '시스템'을 표상하는 코드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1Q84』는 하나의 현대신화로서의 '마이너리티 신화'라는 점, 그리고 포스트옴 시대의 일본 사회에서 '역사'와 '모노가타리' 또한 '신화'의 변주극임을 시사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글은 『1Q84』의 신화론적 분석을 통해 옴사건을 전후한 현대 일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천착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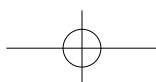
주제어: 무라카미 하루키, 『1Q84』, 옴진리교, 시스템, 마이너리티, 신화, 역사, 모노가타리

연구논단

일본의 고용관행과 젠더: 결혼퇴직을 중심으로 | 에노키 가즈에

투고일자: 2012. 7. 2 | 심사완료일자: 2012. 8. 16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글은 일본 노사관계와 젠더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시도로서 결혼퇴직제도의 전개에 주목했다. 일본의 경우, 전전부터 여성의 노동력화가 진전함으로써 고용의 장에서 결혼퇴직제가 실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이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근대적 라이프스타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고용을 청년기·미혼 시로 한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전후로 이어졌던 것이다. 결혼퇴직의 제도화는 고도성장기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그것은 정규 종



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장기고용시스템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내부 노동시장을 발달시키고 있던 기업은 결혼을 이유로 조기퇴직의 우려가 있는 여성을 미리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제도는 경제합리성을 가지며, 법적인 근거를 잃은 후에도 직장의 불문율로서 잔존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기업은 일관하여 가정책임을 지지 않고 생산노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일본의 고용관행에 의해 규정된 젠더규범은 강고하게 계속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노동, 결혼퇴직, 내부 노동시장, 비정규 고용, 젠더

일본의 산탄지역 진흥정책: 산업구조 조정정책에서 지역개발정책으로 | 정진성

투고일자: 2012. 8. 17 | 심사완료일자: 2012. 8. 22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석탄산업의 사양화가 산탄지역의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61년에서 1962년에 걸쳐 산탄지역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산탄지역 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산탄지역의 산업구조 조정, 즉 석탄산업에서 공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탄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산탄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산탄지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 중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71년 12월에 책정된 제3차 산탄지역 진흥계획에 이르러 산탄지역 진흥정책은 산업구조 조정정책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 부문에 걸친 종합적 정책인 지역개발정책으로 그 성격이 변화해 갔다.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탄지역 진흥정책과 전국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 산탄지역 생활환경 정비의 중시, 공업만이 아닌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적지적성 산업의 육성과 같은 제3차 진흥계획에 새로이 나타난 항목들이었다.

주제어: 사양산업, 산탄지역, 산탄지역 진흥정책, 산업구조 조정정책, 지역개발정책

외국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규정요인 분석: 2000~2008년 일본판 총합사회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김범수

투고일자: 2012. 10. 17 | 심사완료일자: 2012. 12. 6 | 게재확정일자: 2013. 2. 6

이 연구는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가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일본 거주 만 20세 이상 89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일본판 총합사회조사(日本版總合社會調査; J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JGSS 2000~2008년 자료 분석을 통해 연령, 정치의식, 생활정도,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 외국인 대면 기회와 영어 회화 능력 등의 변수가 외국인 증가 찬반 여부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최근 일본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더불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 외국인 문제, 일본판 총합사회조사, 다문화 사회